

2017년, 대한민국 100년과 광복 100주년을 준비하는 첫 걸음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 I. 촛불 혁명의 의미와 과제
- II. 사드 논란으로 색깔론 펼치는 수구보수동맹
- III. 시진핑, 아베, 김정은의 국가전략
- IV. 정권교체와 신주류 형성

I. 촛불 혁명의 의미와 과제

1,000만 촛불과 함께 병신년을 보내고 2017년 정유년을 맞이했다. 시민들은 촛불로 평화혁명을 이루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시민들의 평화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평화혁명은 간디의 말과 같이 폭력의 악순환을 단절시키며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까지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촛불에 대해서 색깔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도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촛불의 위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촛불의 힘이 더욱 돋보인다. 트럼프의 당선은 시민참여의 힘을 믿지 않은 힐러리의 오류를 틈탄 트럼프의 포퓰리즘이 백인 저소득층에게 먹혔기 때문이다. 힐러리 진영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 이후 샌더스 지지로 결집되면서 형성된 시민의 힘이 요구하는 것을 간과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시민의 힘을 차단하려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의 포퓰리즘에 가로막혀 대선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브렉시트도 마찬가지이다. 유럽연합이 관료화되어지면서 시민들의 참여에 한계를 보였다. 이런 상태에서 유럽연합 탈퇴를 선동한 영국 보수당의 포퓰리즘이 먹혀들어간 것이다. 한국의 촛불 혁명은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는 영국, 미국에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시민참여의 힘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탄핵 일정, 대통령 구속여부, 대선 시기, 정계개편 등 2017년의 정치일정은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윤곽은 조금씩 잡히고 있다. 이르면 4월말에서 늦어도 6월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민심의 요구가 더욱 분명해 질 것이다.

적폐청산은 부정적인 유산을 씻어내는 것만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2019년 대한민국 100년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분명히 세워서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100년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해서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향한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나가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의미이고 방향이다.

II. 사드 논란으로 색깔론 펼치는 수구보수동맹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실시되면 종북몰이와 안보장사와 같은 각종 색깔론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적폐인 색깔론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 수구보수세력의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색깔론을 꺼내든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사드 배치 문제를 가지고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NLL논란을 벌린 상황을 재현하고 싶은 것이 수구보수동맹의 의도이다. 3, 4월에 진행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후해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도 색깔론이나 종북몰이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수구보수세력은 색깔론으로 정략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주판 툽기기를 할 것이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 담론을 제시하면서, 엔엘엘을 공세를 통해서 종북의 굴레를 씌우는 두 날의 프레임을 휘둘렀다. 이러한 경험을 맛보았기 때문에 반기문을 정점으로 해서 형성될 수구보수동맹은 적폐의 하나인 색깔론에 반기문의 글로벌 리더십을 가공해서 대통령 선거에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촛불민심이 평화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넘어야하는 첫 번째 고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100년에 대한 자긍심과 광복 100주년에 대한 미래비전이 이같은 퇴행적인 색깔론을 이겨낼 수 있다. 수구보수동맹은 이미 건국절을 주장함으로써 대한민국 100년의 정통성을 부인해왔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민족에게 대한민국 100년은 미래로 전진하기 위한 통합력을 의미한다. 100년의 역사가 튼튼한 기초가 되었을 때 광복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가 가능해진다.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속에서는 김구,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도 모두 대한민국이다.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찬반으로 접근이 아니라 공과 과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할 때 대한민국은 다원주의에 뿌리를 내린 100년의 역사를 가지게 된다. 공과 과에 대한 평가는 다시 대한민국으로 모아지면서 국민통합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III. 시진핑, 아베,金正은의 국가전략

대한민국 100년이라는 국민적인 자긍심으로 2045년 광복 100주년에 ‘세계 5강의 아름다운 통일국가’ 건설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세력이 헌법정신에 기초하는 대한민국의 신주류가 될 것이다. 이미 시민들이 켜 촛불에 의한 평화혁명은 이미 우리사회의 방향을 가늠하

는 주류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각종 크고 작은 권력은 수구보수동맹이 장악하고 있다.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다시 퇴행적인 색깔론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수구보수동맹은 이미 사드 배치 문제를 2012년 대선에서 NLL과 같은 이슈로 키우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그 차체를 가지고 찬반 논쟁이 벌이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사드배치 자체를 가지고 찬반 구도를 만드는 것은 수구보수동맹의 색깔론 프레임이 갇힐 위험이 있다. 2045년 광복 100주년을 맞이하기 위한 미래전략으로 ‘세계 5강국가’론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2019년 대한민국 100년 맞이 국민통합전략을 비롯하여, 2045로 나가는 중간단계로 2020년, 2030년 등의 구체적인 단계마다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국가미래목표가 불분명한 나라가 없다. 심지어 아베의 경우에도 지난 신년사에서 ‘1억 총활약 사회’라는 일본의 미래목표를 제시했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인 한 명 한 명이 모두 가정과 직장, 지역에서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2017년을 헌법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조상들은 폐허와 궁핍으로부터 의연히 일어나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에 자랑할 자유 민주 국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헌법 70년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50년 이후 일본이 나갈 국가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시진핑은 이미 2021년 공산당 창당 100년과 2049년 국가건설 100년을 목표로하는 중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내부적인 개혁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은 2017 신년사에서 “평화발전을 견지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외정책에서 영유권 수호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체제도 사회주의 문명국가론을 내세우면서 정치강국, 군사강국, 경제문화강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는 상황이다.

트럼프의 당선, 중국의 강력한 핵심이익 수호의지 피력, 적극적 평화주의 추진이라는 이 름으로 재무장을 가속화하는 일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북한 등 동아시아의 상황은 탈냉전 이후 가장 불확실한 구도로 짜여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각 국가들은 자신들의 나아갈 미래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국가미래목표가 불명확한 상황인 것이다.

IV. 정권교체와 신주류 형성

광복 100주년을 목표로 한 국가 미래전략을 짜고, 트럼프 당선 이후 불확실해진 동북아 상황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새로운 플랫폼으로는 ‘동아시아 물류 에너지공동체’ 같은 구상을 제시할 수 있다. 동북아와 동남아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까지를 포괄하는 ‘동아시아 물류 에너지공동체’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트

럼프 정부와 협상하면서 동시에 사드 배치에 대한 전략도 새롭게 짜들어가야 한다. 남북경제협력 역시 ‘동아시아 물류 에너지공동체’라는 플랫폼 위에 배치하면서 북핵과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비전과 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경제공간을 확대하고 남북경제통합을 연결시키면서 트럼프 정부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이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의 임무이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제시하면서 안보와 성장이라는 담론을 제시하는 것이 수구보수동맹의 퇴행적 색깔론 공세를 막아내고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과제를 수행하는 길이다.

대한민국의 기존 주류가 본성상 수구인 관계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주류가 장악했던 성장과 안보담론조차 부실해진 상황이다. 심지어 헌법정신마저도 희미해졌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외쳐왔던 세력들이 성장과 안보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류를 교체해야 한다. 대한민국 개조와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기존 주류였던 수구보수동맹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 신주류를 형성하여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이 되는 해가 바로 2017년이다. 평화혁명을 정권교체로 마무리해야하는 이유이다. (2017/01/11)

* 이 글은 한반도평화포럼(koreapeace.co.kr)에서 발행하는 ‘한반도의 아침’에도 함께 실렸습니다.

※코리아연구원(이사장: 박영재 / 원장: 김창수)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 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CMS자동이체

홈페이지(www.knsi.org)에서 직접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처로 전화(02-733-3348)주시면 더 쉽습니다.

※온라인 송금

우리은행 1005-100-937962(예금주: 새로운코리아구상을위한연구원)